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봄이 와서 들뜬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태주 시인의 ‘꽃꽃’이라는 시구다.

매년 꽃들이 만개할 즈음이면 학교도 새 학기를 맞아 수업과 행사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곤 한다. 하지만 올 봄에는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었다. 10년 이상 필자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을 치료하고자 약 2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회복하는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 걷다보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봄의 화사함, 마른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자연의 신비함, 캠퍼스에서 명랑하게 재잘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켜보았다.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무

천천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

심히 지나쳤던 일,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던 일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주변의 따뜻한 봄날과 활기 있는 삶의 모습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담장에 피어있는 라일락의 그윽한 향기를 맡다보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교수가 생각이 났다. 그는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학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필리핀 무의촌으로 의료봉사를 나가곤 했다. 대학병원 특성상 여름휴가는 일주일 남짓했는데 그 황금 같은 휴가를 의료 봉사하는데 다 쓰고 돌아와서는 소진된 기력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필자를 매번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다. 그 해에는 해외 봉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친구들은 그에게 ‘몸이 아프면 좀 쉬어야지, 왜 무리를 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왔냐’,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신경을 써야한다’라는 걱정 어린 충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지금까지 여름방학이면 매년 가던 의료봉사여서 올해도 가야될 것 같아 조심하면서 다녀왔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었다.

‘몸이 안 좋으면 이기적이고 소심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던 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한 삶을 살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의 병은 치유되었고 정년퇴직 후, 신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의료 활동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에 대한 추억은 무릎 통증 하나 때문에 소심하게 작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니, 무릎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움직임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아왔던 과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 이웃,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빙그레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전환점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이기적으로 변하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생기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벗들의 귀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다고 다짐한다.

계절의 여왕인 5월,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짙어지고 라일락, 아카시아 꽃향기가 퍼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자. 바쁘게 지나왔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을 느끼고 자신을 회복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

종교칼럼

애(愛)·취(取)·유(有)를 잘하라



김인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는 것이 선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을 옹호하는 불제자와 천인 아수라가 많이 계시고 부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늘 부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둘째는 취이다. 사랑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사모하여 가까이 모시고 무슨 일든 정당한 마음으로 순수에 맞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道)이다. 세상을 살펴 보면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그 좋아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한다. 어느 날 그림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혼자 웃는 일이 있었다.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가지고 싶은데 취할 때 바르게 취해야 내 것이 되고 오래간다. 인과를 배우고 익혀서 순리자연하게 좋아하는 것을 취해야 한다.

셋째는 유이다. 무엇을 취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무엇이든 쌓아놓으면 낮아지려고 하듯이 모여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내가 돈을 모았을 수도 있고 이윤을 모았을 수도 있다. 누구나 이렇게 모아놓고 소유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유한 것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계속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 취한 것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소중하게 오래 보존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 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을 소유한 이

몸이다. 이 몸을 잘 살펴보면 아픈 곳이 나오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그곳이 나오면 또 다른 곳이 아프기를 반복한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오래 보존하고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인지 범부 중생이 이 몸이 죽을 때쯤 되면 제 몸에 대해 제일 애착이 많다. 우리가 한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도를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또 취할 때에 정당하게 잘 취하는지, 소유한 것을 법 있게 잘 관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것은 결국 전부 무로 돌아간다고 했다. 허공같이 빈 것에서 시작되었으니 다시 그 빈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빈 마음을 잘 생각해서 단련해야 참 도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챙기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처음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처음마음이 나오기 이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전초심(前初心)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잘 다녀올 수 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참말을 하고 간다고 해서 ‘말보’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네’라고 참회하고 가지만, 수도인은 말보가 나오기 이전의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지언정 죽을 때는 말 없는 그 마음에서 분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부디 전초심을 잘 챙겨서 시종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기고

‘광주의 봄’을 앞당기려 한 ‘전국의 5·18들’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한편을 뽑는다면 단연 ‘서울의 봄’이다. 그러나 영화의 제목과 다르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봄’이 아니라 ‘참혹한 겨울’이었다. 5·18, 열흘간의 항쟁 이후 광주의 비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에게 그것은 ‘영원한 상처’이자 ‘가장 오래 기억된 피멍’으로 남았다.

광주가 외롭지 않았던 건 1980년 5월 광주에는 없었지만, 그 후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수많은 ‘전국의 5·18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민중항쟁 44주기를 올해 오월에도 전국에서 5·18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이들이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 40년 전인 1984년과 1985년 전국의 대학가에서 진행됐던 ‘5·18’은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고,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힘을 모아줬던 ‘그날’의 현장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건 의미있는 일이다.

전두환 정권은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1984년 한국에 최초로 교황이 방문하기

전 학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5·18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직이 허용되었으며 대학 내 상주하던 경찰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됐다. 이런 조치는 광주의 진실에 대한 갈망이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각 대학에서는 5·18 4주기를 전후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게 된다.

고려대에서는 1984년 5월 16~26일 동안 분향소와 모금함을 운영했으며 재현극·추모제·화형식 등을 전개했다. 연세대에서는 창작마당극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의 닛 위령제’ 등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화여대 학생들은 5월 17일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추모식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5·18 추모행사는 기존 5월에 진행된 대학축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많은 대학에서는 축제 명칭을 ‘대동제’ 등으로 명명하고 5·18 추모행사를 병행한 대학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서울대 학생들은 1984년 기존 5월에 열렸던 축제 명칭을 ‘5월제(祭)’로 변경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광주와 5·18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1985년 5·18 5주기 전후로 관련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경북대 학생들은 추모제와 진상보고대회를 개최했고 500여명의 학생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가두시위를 시도했다.

또한 경찰들의 저지로 광주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를 향한 순례의 열망을 대학 내에

서 재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85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5·18행사주간에 탐극·민주영령 장례식 및 부활제 등을 3일간 진행했다. 이 기간에 눈에 띄는 것은 흰 꽃으로 장식된 상여가 법정대앞(광주공영터미널), 가정대앞(금남로), 이화광장앞(전남도청) 등에 마련된 분향소를 차례로 돌았다는 것이다. 이화여대의 주요 공간을 ‘80년 5월의 광주’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공영터미널 등으로 설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건국대 학생들 역시 대학축제 기간에 상여를 만들어 장례행렬로 건국대 곳곳을 돌았다. 또한 광주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인 ‘광주로(光州路)’를 만들어 축제 기간 내내 건국대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의 진실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정한 ‘광주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수많은 ‘전국의 5·18들’ 덕분에 ‘지금-여기’의 5·18이 조명될 수 있었다. 즉 1980년 5월, 군사반란세력에 의해 광주시민들은 패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후 마땅히 밝혀지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5·18은 승리의 역사로 되살아날 수 있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제44주기 오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40여년 전 ‘광주의 봄’을 앞당기고자 했던 ‘전국의 5·18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社說

‘소멸 극복’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명분있다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남도는 그제 도청에서 열린 제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선자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인 광역 시도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다.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국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네 곳만 지정돼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우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명칭에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명분과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쉽게 말해 소멸위

기 전국 1위라는 전남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전남은 지난달 인구 180만명이 붕괴된 가운데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전국 최다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고 고령화율(26.5%)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를 통해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터미널 특구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의 국가차원적 특화사업 육성을 촉진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현실론인데 특별법 제정이 우선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법안연계에서부터 명분을 내세워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갖 출범했고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에 광주·전남이 한 울타리로 묶여 있는 점은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과제를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쉽게 말해 소멸위

지역현안 결린 국회 상임위 외면, 역할 분담을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외면해 우려를 낳고 있다.

4·10 총선 당시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 공군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이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에 신청자들이 물리는 데 반해 공군항 이전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선거공약을 내건 의원도 신청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동남을 당선자는 기획재정부위원회 등 희망 상임위에 각각 배정됐다. 광주시 문화경 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서구갑 당선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서구를 당선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다.

또한 변호사 출신의 정준호 북구갑 당선자는 정무위원회, 여성 인권과 복지 분야 증진에 힘써온 전진숙 북구를 당선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해 배정됐다.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군택 광산갑 당선자는 검찰 개혁에 앞장선 경력을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유일 재선인 민형배 광산을 당선자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물론 지역구의 현안과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의 최대 현안인 공군항 이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데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초차 관련 상임위를 외면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원들이 광주의 미래가 담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상임위 활동은 필수다. 특히 여소야대의 22대 국회는 지역의원들의 정치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20년. 강산이 열 번하고도 두 번 더 바뀐 시간이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 팬들은 1904년 팀 창단 이후 120년의 가나니 기다림 끝에 우승의 기쁨을 맛

봤다. 축구는 22명이 90분간 공을 쫓다가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고, 분데스리가는 1년 내내 18개 팀이 싸우다가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는 리그라고 한다. 그런데 준우승만 5차례 하며 ‘절대 우승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네버쿠젠’이라 조롱받던 팀이 놀랍게도 무패의 성적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레버쿠젠의 우승 배경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있다. 선수 시절 미드

전술은 선수들이 매 순간 경기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컴퓨터 게임을 하듯 치밀한 공격과 수비를 펼친다. 슈퍼스타가 없어도 포지션 파괴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 전략으로 최강의 팀을 만들고 있다. 그를 보면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며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던 한국은 이후 축구협회의 잇따른 헛발질과 클린스만 사태를 겪으며 추락을 거듭해 이제 동남아 팀들마저 만만하게 보는 ‘종이호랑이’ 신세가 됐다.

‘알론소볼’ 열풍은 K

필더로 뛰며 뛰어난 축구 센스와 대지를 가르는 정확한 톱 패스로 유명했던 그는 영국·스페인·독일 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수집한 보기 드문 선수였다. 감독복도 많았다. 안첼로티·무리뉴·파르티올라·넬 보스케 등 명장들을 거치며 배운 리더십과 다양한 전술 철학은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알론소 감독은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지향한다. ‘알론소볼’로 불리는 그의

리그에까지 불어오고 있다. 광주FC 이정호 감독의 ‘정호볼’이다. 이 감독은 알론소처럼 치밀한 전술로 2부 리그에 떨어진 팀을 K리그1으로 승격시키고 지난 시즌에는 3위를 차지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는 광주FC의 울트라 팬들을 거치며 배운 리더십과 다양한 전술 철학은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하위권인 8위. 광주 팬들이 우승 세리머니를 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월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